Lucerium
국립광주과학관

온 가족이 함께 '해피 사이언스마스'

24~25일, 공연·체험·이벤트
산타복장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어린이 관람객 선착순 선물 증정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국립광주과학관이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행사 '2022 해피 사이언스마스'를 개최한다.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과학관 실내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이벤트 등 15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24일에는 요들송 캐롤공연과 함께 크리스마스 펠트등 만들기를 체험해볼 수 있으며 어린이 관람객 한정 크리스마스 캐리커처도 진행된다.

24일과 25일 양일 진행하는 행사로는 크리스마스 가족 시네마 애니메이션 영화상영, LED를 활용한 미니트리만들기, 한겨울 생태연못의 생물들을 관찰하고 나만의 물고기를 만들어보는 '나는야 물고기 생태탐험가' 교육 등이 있다. 최근 새단장을 마친 천체투영관도 회당 99명씩(5회차)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크리스마스 특별공연과 함께 산타클로스와 함께 찍는 즉석사진 추억 만들기도 이뤄진다.

이 외에도 특별이벤트로 크리스마스기간 동안 빨간색 의상 또는 산타복장을 착용한 관람객은 상설전시관을 무료입장할 수 있으며, 온가족 즉석사진 촬영과 특별전 관람후기 작성 시 기념품 증정 등 풍성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또 행사기간 과학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관람객과 항공우주특별전을 방문하는 가족 관람객에게 선착순으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지난해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축제 모습.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국립광주과학관 크리스마스 특별행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매는 현장에서 가능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12월 과학스쿨…GIST 김경중 교수 '인공지능, 게임을 만나다'

21일 과학관 상상홀

국립광주과학관은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함께 21일 오후 7시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에서 '12월 과학스쿨'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 게임을 만나다'를 주제로 GIST 융합기술학제학부 김경중 교수를 초청해 진행한다. 게임과 인공지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게임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을 위한 게임은 무엇인지, 미래의 게임 등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경중 교수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박사후연구원,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거쳐 GIST 융합기술학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게임 인공지능, 강화 학습,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등이다.

과학스쿨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매월 강의를 듣고 스탬프를 7개 이상 모으면 특별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 과학관 누리집 행사후기에 사진과 함께 소감을 남기면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 처음 참여하거나, 친구를 초청하는 경우 스탬프를 두 배로 적립할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과 GIST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에 '과학스쿨'을 개최하고 있으며, 어려운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지식을 전달하는 정기 강연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경중 교수

과학스쿨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 또는 과학스쿨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립광주과학관 사이버과학관에서 지난 강연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도 과학스쿨은 150명 선착순 온라인 사전예약 후 현장 입장 가능하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웹의 대전환… '웹3' 시대가 온다

인터넷 지형 바꾼 새로운 패러다임 'IT 트렌드 2023' 출간

MZ세대(13~43살)는 게임 전용 메신저에서 소셜 생태계로 거듭난 '디스코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 게임을 즐기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따라가기 버겁게 느껴지는 이들이 분명 존재하고 이미 발 맞춰 걸음하고 있는 이들도 있는 가운데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까?

책 'IT 트렌드 2023'은 웹3가 바꾸는 미래를 부제로 기술이 우리의 위기를 어떻게 돕고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킬지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 김지현은 26년간 IT 분야에서 기업인으로, 저술가로, 교수로 다양하게 활동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ICT 트렌드와 이로인해 생겨나는 우리 일상 속 변화, 기업의 혁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5년 전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것 외에 큰 쓰임새가 없었다. 우리에겐 투기와 욕망의 기술로 점철된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블록체인 기술은 무역 거래와 탈중앙화 글로벌 금융 서비스, 디지털 예술품 소유권 보장과 거래 등으로 확장됐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정한 분배와 탈중앙화된 가치철학을 갖고 인터넷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웹3라고 한다.

1991년 등장한 웹은 포털사이트, 검색 기능 등을 통해 정보를 읽어들이는데 집중했고 2004년 웹 2.0에서는 SNS등을 대상으로 쓰기에 주목했다. 웹 3.0 시대인 오늘날에는 월렛, 디파이, DAO를 킬러앱으로 삼아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해 자산을 소유하는 기능을 목표로 두고 있다.

웹3는 탈중앙화, 상호운용성, 자율화를 보장하는 평등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분산된 컴퓨팅 환경에서 시스템을 운영해 데이터 이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대체불가토큰(NFT)을 사용해 자산을 호환해 사용할 수 있는 상호운영성(호환성)도 보장된다. 또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참여를 넘어 운영 주체가 되는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

저자는 이렇게 되면 기존 컴퓨터 웹과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하던 서비스도 탈중앙화 서비스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다. 탈중앙화는 '공정'을 주 가치로 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권력은 분산되고 사적 이익보다 참여자의 공동 이익을 지향하게 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블록체인이 쓰인다.

웹3가 웹2.0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지, 마케팅 용어로 반짝 유행이 될지는 3년 안에 판가름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20년간 PC와 스마트폰으로 웹, 모바일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빅테크 기업의 고도 성장, 플랫폼 독식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메타버스 등 새로운 생태계가 탄생할 것을 예고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수족 모두 잘렸다" 항우연 조직개편 반발 확산

사실상 해체…나로우주센터장·발사체사업본부장 등 사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최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이하 발사체개발사업본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자 이에 반발한 보직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항우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옥호남 나로우주센터장이 이상률 원장에게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나로우주센터는 지난 6월 한국형발사체(KSLV-2)인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곳이다.

앞서 고정환 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조직개편을 통해 발사체개발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조직이 사실상 해체돼 머리만 있고 수족은 모두 잘린 상태가 됐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데 이어 사업본부 내 부장 5명도 사퇴했다.

누리호 개발 임무를 마무리한 발사체개발사업본부를 내년 6월 이후 해체하고, '발사체연구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반발이다.

항우연은 지난 12일 발사체연구소를 신설하고 그 아래에 누리호 3~6차 발사를 맡을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단', 100t 액체 로켓엔진 등을 개발하는 '차세대발사체사업단', '소형발사체연구부' 등을 두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어 최환석 부원장을 발사체연구소장에 임명하는 등 인사도 단행했다. 조직 개편과 인사는 내년 1월 1일자로 적용된다.

발사체개발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계약한 내년 6월까지 본부장 1명과 행정요원 5명만 남아 존속한 뒤 해산한다. 고 본부장 등이 낸 사퇴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항우연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가 다가오는 등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시기에 주요 보직자들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만큼 그들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고도화 사업을 맡아 책임·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